

다산포럼

‘오징어 게임’의 VIP와 ‘말’(馬)들



전성건 국립안동대학교 교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기사가 점점 사라진다. 기사는 기록하는 사람이다. 기록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우리말은 아름답다. 세계의 언어학자 치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꽃이라고 한다. 2021년 국정감사는 이른바 대장동계이트에 대한 것으로 파행을 겪었다.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에서 동양은 수치심 문

화(shame culture)를 가지고 있고, 서양은 죄책감 문화(guilt culture)를 가지고 있다고 설파했다.

우리는 예의염치(禮義廉恥)가 상식인 공정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예의염치라는 상식이 있기에 부끄러울 수 있고, 공정사회를 추구하기에 법적 질서를 지킬 수 있다.

유교는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 설명 가능하다. 수기(修己)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맑은 거울처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공자의 명언이다.

행동할 때 완성된다. 오징어 게임에서 VIP들은 돈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한 게임에 들어온 참가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마치 경마장 말(馬)들의 경주인 양 즐기며 관람한다.

나라를 걱정하지 않게 해 주고 세금을 적게 거두면 된다. 대장동과 화천대유, ‘개 사과’와 ‘왕(王)자 손바닥, 공천 협박과 조폭 연루 등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백성이 귀중하고, 사적이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볍다.” 맹자의 명언이다. ‘말’(馬)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VIP가 되고, VIP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 고위직 관리가 되고, 고위직 관리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 하위직 관리가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사법 능단에 관여한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임기 만료로 퇴직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수필의 향기

낙엽이 하는 말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푸른 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나무들이 울긋불긋 가을옷을 입었다. 계림에서 백운까지, 광주 ‘푸른길’을 걷는다.

“나도 새처럼 바람처럼 어디론가 가고 싶었어. 평생 여기서만 있었거든. 천둥 번개 눈보라에도 여기만 있었어, 나무의 꿈은 똑같아, 이파리로나마 자신을 떨리 떠나보내려는 것이지.

“나도 새처럼 바람처럼 어디론가 가고 싶었어. 평생 여기서만 있었거든. 천둥 번개 눈보라에도 여기만 있었어, 나무의 꿈은 똑같아, 이파리로나마 자신을 떨리 떠나보내려는 것이지.

일상이 모여 인생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이뤄지는 건 없어, 제일 좋은 삶은 매일 열심히 사는 게야.”

그때 맞아, 나도 맞장구를 치고 몇 걸음 나아가니 이번엔 상수리 잎이 내 얼굴을 때린다. 낙엽 왈, ‘넌 너무 무거워, 그깟 잡동사니 버렸다고 날 줄 아니, 네 안의 잡념을 버려, 집착도 탐욕도 홀출 날려 버려, 그래야 날 아가지!’

“눈물 나게 맞는 말이다. 상수리 잎을 때려 내고 몇 바자국 걷는데 갑자기 돌풍이 분다. 낙엽 무리가 웅웅거리며 한꺼번에 지나간다.

“늘 배경으로 존재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까이 발밑으로 깔리는 낙엽의 희생이 눈에 시리다. 슬며시 낙엽 하나를 손에 든다. 그를 바라보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상처투성이 그녀, 그 속에 울어들 비바람과 천둥 번개, 별레들과 매미 우는 소리, 심지어 다들 뿜 발소리까지 다 담겨있구나. 아!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서관 하나라더니 낙엽 하나도 도서관이자 우주로구나.

“그때 작은 낙엽이 나를 바라보며 하는 말, ‘너는 나보다 더 큰 우주야. 너도 나처럼 마리에 단풍이 들었군! 난 노란색인데 넌 하얗게 들었구나, 누구도 우주의 섭리를 거스를 순 없어. 그러니 너도 꼭 나처럼 낙엽이 된

다는 사실을 잊지 마. 선배로서 말해 주는데, 가져갈 건 없어, 아무것도. 이제 곧 헤어져야 해, 지금까지 수많은 이별을 했다고? 그런 연습이야. 이제 진짜만 남았어, 살았던 집도 떠나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도 물론이지. 잊지 마. 이번엔 네 몸뚱이도 두고 가야 해, 너와도 이별이야. 단단히 준비해.’

갑자기 어지럽고 춥다. 아니 인정하기 싫다. 비틀비틀 벤치에 앉는다. 늦가를 햇살이 비친다. 한 낙엽이 자기가 영태배우었다며 내 어깨를 다정하게 걸쳐 온다.

“그때 건너편 단풍나무도 거든다. ‘너무 걱정하지 마.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 난 로 맨티시스트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다 낭만 덕분이었어. 너도 낭만을 가져봐. 돈이 없지 꿈이 없나. 낭만, 멋있지 않아. 그러니 고개를 숙이지 말고 나처럼 파란 하늘을 보며 살라 말아야.’

“낙엽이 내 등을 두드리며 떠나간다. 그가 가면서 하는 말, ‘내년에 또 봐?’ 낙엽 따라 걷는 길은 상념과 벗하며 걷는 길. 갈수록 더 깊어지는, 늦가를 푸른 산책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다.

社說

중증환자 간병 이제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최근 중증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다 한계에 직면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광주시 광산구에서 발달장애인 아들(25)을 돌봐 온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제2 반도체산업 고자기장연구소 이번엔 꼭

광주시가 사업비 1조 원대 규모의 ‘초광역 국가 고(高)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울산·강원도와 손을 맞잡기로 했다.

사실 고자기장(High Magnetic Field) 기술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단어인데 생물학·에너지·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와 산업에 폭넓게 활용되는 기초과학의 첨단기술이다.

이번엔 광주·울산·강원이 뭉친 것은 소

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치부되면 서 온갖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환자 돌봄을 이제는 개인 영역으로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담당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치부되면 서 온갖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환자 돌봄을 이제는 개인 영역으로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담당해야 한다.

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던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를 체계적이고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리는 고자기장 시설은 방사광가속기, 중성자 산란 실험장치와 함께 현대 응집물리 분야에 3대 핵심 거대 연구시설로 꼽힌다.

그림이다. 올해도 14개 시군에서 여행작가와 파 워블로거 등 68팀 106명 을 선발해 최소 7일에서 드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보면 위케이션 검색 조회수가 최근 1년 만에 300%나 증가했다.

無等鼓

여행지에서 일하며 휴식을 즐기는 ‘위케이션’(work+vacation)이 새로운 업무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관광공사의 다양 한 조사에서도 위케이션 인기를 확인할 수 있 다. 구글과 네이버 트랜 드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보면 위케이션 검색 조회수가 최근 1년 만에 300%나 증가했다.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 선호도를 기준으로 뽑은 위케이션 인기 지역도 있다. 성장 가능성 및 소비자 선호도가 모두 높은 지역으로는 전국 9개 시군이 뽑혔다. 이 가

운데 여수가 포함됐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보령·아산과 함께 신안이 뿔뿔 전남의 위케이션 잠재력을 보여 주고 있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남도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여행과 일을 함께 하는 위케이션 제도를 반영한 것이다.

기업들은 요즘 여행지에 아예 거점 오피스를 마련하는 추세다. 그중 제주와 강원 이 발 빠르게 움직여 ‘휴일 단기’에 머물러 관광 수요를 ‘평일 장기’로 이끌어 내고 있다고 한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수진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위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올바른 선택이 국가의 흥망을 가른다



김용하 시인·전 광주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가 확정되어, 국가와 민족의 흥망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선택의 순간이다가 오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과옥조같이 새겨야 할 말이 있다. 그중 하나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다.

임기말에는 번번이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 자녀·친인척·측근들의 비리 부정으로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후보 시절부터 온갖 사건과 의혹 속에 출발하고 그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처지이니 참 기가 막히는 현실이다.

또한 공자는 정자정야(政者正也)라 표현했다. 정치 는 바로 잡는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 국민은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필이면 그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대형 사건에 연루되어 사실 여부를 밝히는 과정에 있거나, 가족들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각 정당에서 추천한 인물들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심 없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에서 추천한 인물들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심 없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